

# 새정치연합 지지도 19.8%... 합당 이후 최저

### 리서치뷰 정당지지도 조사... 호남서도 42.5% 그쳐

### 10명중 6명 "세월호법 진상규명위에 수사권 줘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합당 이후 처음으로 20%대 아래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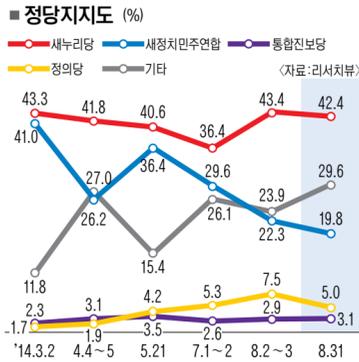
또한,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0% 가까이는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위원회에 최소한 수사권 부여는 해야 한다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월호 특별법' 파행에 대한 가장 큰 책임으로는 정치권을 꼽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팩트 TV와 함께 지난 31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새누리당이 42.4%의 지지를 얻어 19.8%의 지지를 얻은 새정치민주연합을 2배 이상 앞섰다. 이어 정의당 5.0%, 통합진보당 3.1%, 무당층 29.6% 순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항상 60% 이상의 지지를 얻던 텃밭 호남에서도 42.5%의 지지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인 경기·인천에서는 14.4%로, 대구·경북(15.6%) 보다도 더 낮은 지지를 보였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것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야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새누리당과 합의, 재합의 등을 반복하는 모습에 실망한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인 진상규명위원회 수사권·기소권 부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2.4%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16.6%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답해 국민 10명중 6명은 최소한 수사권 부여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29.6%에 그쳤다.

이밖에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 파행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권(39.6%) ▲박근혜 대통령

(25.5%) ▲세월호 유가족(12.7%) ▲언론(9.9%) 순으로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 이행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0.9%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고, 46.4%는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직무평가(지지도) 조사 결과에서는 '잘못하고 있다'(45.2%)는 부정평가가 '잘하고 있다'(43.4%)는 긍정 평가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1.8%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31일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RDD(임의전화결기)방식으로 진행됐다. 통계보정 이후 인구 구성비는 남성 49.4%, 여성 50.6%였으며, 연령대는 19세~20대 17.4%, 30대 19.4%, 40대 21.6%, 50대 19.7%, 60대 이상 21.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고, 응답률은 4.9%였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 오늘 취임... 공식업무 돌입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2일 취임한다. 광주시는 우 경제부시장이 이날 오후 5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 부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광주공원 현충탑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회견과 시의회를 찾아 취임인사를 하며 취임식 이후에는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부안 출신인 우범기 경제부시장은 전주 해성고등학교, 서울대 경영대학을 나와 미국 샌디에이고대학에서 국제리더십 과정을 수료했으며 1993년 경제기획원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장, 노동환경예산과장, 재정기획과장, 재정관리총괄과장을 거쳐 지난 2월부터 통계청 기획조정관으로 일해 왔다.

업무능력 외에 관리자로서 3년 연속 '달고 싶은 상사'(기획재정부 전직원 대상 투표에 선정되는 등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지역과 중앙정부와의 정부적인 가교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 국회, 내일 본회의 표결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3일 본회의의 참석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회는 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정의위 국회의장은 이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에서) 사무총장까지만 (표결)하기로 국회의장과 얘기가 됐다"며 밝혔다.

또 "3일 본회의가 다시 한 번 열린다면 대법관(임명동의안)을 그때 할 것"이라며 "그때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자유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 사무총장에 박형준 전 의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박형준(55) 국회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표결로 승인했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박 내정자는 총 투표수 217표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28표, 기권 6표로 신임 국회사무총장으로 확정됐다.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있다.

박 사무총장은 17대 의원(부산 수영)을 지냈으며,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을 지내고 청와대 정부수석과 홍보기획관, 사회 특보 등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인사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전남도의회는 1일 오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2014년도 도의회 의원 연찬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이달말 출범

### 亞문화전당 연계 관광활성화 등 15개 과제 해결 주력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미 설정된 15개의 상생 과제 해결에 주력하게 된다.

전남도는 1일 "오는 17일 광주와 상생협력 7대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조율하는 만남을 갖고 규약을 마련한 뒤 상생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도는 그동안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구성 및 협의안건 논의 등을 위한 실무협의만 3차례 가졌다.

시도는 협의과정에서 ▲신 영산강시대 상생발전 정책 수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제2 남도고속 건립 ▲무안공항 활성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보 ▲광주발전연구원 및 전남발전연구원의 역할 제고 등 기존 7개 과제에 8개 과제를 추가했다.

추가된 과제는 ▲상생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영산강 재자연화(복원) 추진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 ▲광주·전남 이미지 개선 및 창조사업 ▲공동의 국제화 추진 ▲유라시아철도 호남축 반영 ▲영산강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등이다.

시·도는 17일 다시 만나 광주·전남 광역행정협

의회 규약 전부개정안 및 협의안건 준비,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마친 후 이달 안으로 위원회 규약 전면 개정(안)을 시·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송상락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양 시·도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시·도지사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 출범을 선언할 것"이라며 "지난 2011년 이후 주춤했던 광주·전남의 상생이 본 궤도에 올라 시·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은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연하고 나선 위로 종주국은 개의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고 로서 위상을 높여온 책의 왕국은 이 헤이은와이는 세계 최초 온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다. 이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된 되었다. 헤이은와이는 마을 주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민 모두가 사랑 주 주인이다.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와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은와이를 애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